

멧목의 비유와 ‘낮뜨거운 방편’은 분명히 다르다

무비 스님

講論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 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

<금강경>을 두고 소의경전 타당성을 점검한 무비 스님의 법석은 <금강경> 각 분마다 대중이 함께 독송을 하고, 토론을 할수록 깊어지는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분별심을 떠난 비판으로 줄어졌다.

#깨달음은 없다

제2 선현기정분(善現起請分):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

무비 스님: 범어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스님에게서 수보리 같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신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 스님들이 다 알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지극한 발심과 열정, 참구(參究)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토론자(우바새·포항): <금강경>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무비 스님: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無所得法). 깨달음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깨침과 설법은 없다. <금강경>에는 깨달음이라 할만한 정해진 법도 없고 여래가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다(無有定法)고 설했다.

도법 스님: 우리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고 한다. 법주스님은 이런 까닭에 깨달음이 없다고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천개의 손·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다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머리 속에 그리는 깨달음, 부처는 실재하지 않는다.

#중생제도는 실천이 우선돼야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이와 같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무비 스님: 대승불교의 삶은 모든 중생을 위한 제도하고 교화하는 일이다. 오늘날 불교에 중생제도를 위한 노력은 있는가? 오늘날의 포교는 과연 중생제도인가? 그리고 중생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참으로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인지 생색 내기 위해서라도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은 무비 스님과 사부대중은 시종일관 <금강경>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중생제도를 하는지 분별이 많다. 작은 행동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중생제도 필요하다.

#어려운 돕는 것이 최우선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무비 스님: 아름다운 행위는 집착이 없다. 떠날 때 시원하게 떠나는 사람이 아름답다. 집착 없이 보시하기 어렵다면 상(相)을 내도 좋다. 상 내도 좋으니 무의탁 독거노인,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상보시가 어려우면,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라도 하라는 말이다.

#사회문제 차별 없이 대응해야

제5 여러실견분(如理實見分):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무비 스님: 여래를 신체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이해하는가? 또, 사람을 외적 조건을 떠나서 고유하며 지고한 가치로서 이해하는가?

차별이 많은 사회다. 내면이 아니라 외형에서 비롯된 차별이 너무나 많다. 불교는 현상을 공(空)하다고 보고, 연기(緣起)를 강조한다. 부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도법 스님: 노무현 前 대통령은 평생 일관된 행동을 해, 바보 노무현으로 살았다. 죽음을 일관된 것, 그래서 보살행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여래심(如來心)에서 우리에게 충격과 아픔을 준 사건이 노무현의 서거와 용산참사가 아니겠는가.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는 범종단적으로 조의를 표하지만 용산참사에 대

진정성 담긴 살아 움직이는 중생제도 필요

“무주상보시 어려우면 상내는 보시라도 하라”

본질 잃지 않을 ‘법 다운 방편’ 찾아야 할 때

해서는 불교계가 눈 감고 있다시피 한다.

무비 스님: 문제의 경중을 떠나 왜 한 사람의 죽음에는 거국적으로 조문하면서 죽어서 안될 사람들의 죽음은 외면시 하는가. 사람의 생명은 동일함인데 왜 그런가.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대통령의 죽음이 됐던 행복한 죽음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서울 시내를 다이아몬드로 재건한다고 해도 한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곳에 눈뜰 수 있는 의식이 아직 미약한 것이 불교계의 현주소다.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아져서 진실로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많이 쓸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불교 1번지사 영가장사 말미야

제6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무비 스님: 방편불교는 과연 방편으로 이해하는가. 무당화 된 방편불교와 거품불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불교 천도불교 행사불교 등은 어떤가. 부처님 설법마저도 뗏목과 같은 줄이라고

했으니 별의별 방편이 만들어졌다.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낮뜨거운 현상들도 많이 벌어진다.

법산 스님: 지금 조계사, 해인사에서 1029일 천도재를 하고 있다. 방편이라고는 해도 이것이 가능한가. 나도 가끔 천도재를 올리지만, 그 천도재를 통해 영가가 정말 극락 가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영가의 극락왕생을 빌어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1029일까지 거창하게 천도재를 봉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종지종풍(宗旨宗風)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무비 스님: 이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해인사와 조계사는 각각 법보종장과 한국불교 제1번지인데, 49재를 49번 지내는 것을 짚아해서는 안된다.

조계사 주지스님 요청으로 그 자리에 갔다. 참석해서 대중들에게 영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가 바로 영가다. 전생의 자손들은 지금 우리 이름을 붙여 놓고 천도할 것이다. 물론 천도재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해인사가 어떤 사찰인가. 법보인 ‘팔만대장경’을 모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이다.

서릿발 같은 법만 거창해도 모자란 것이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도 마찬가지다. 최상승의 법을 거창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불교를 세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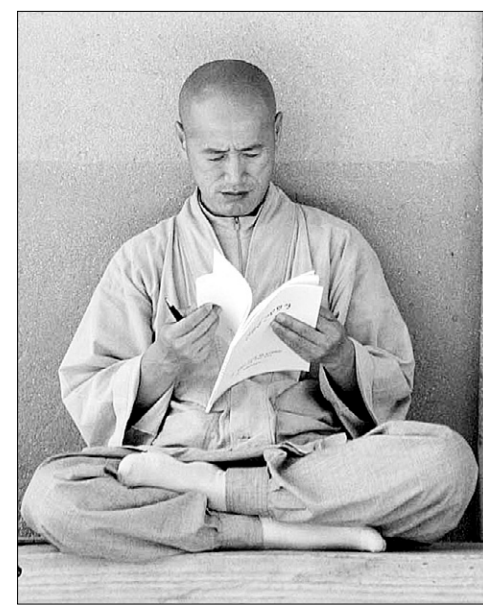
현각 스님: 직접 거론하기 어렵지만, 영가를 팔아서 큰스님이 된 스님도 있다. 지난해 분림사주지연수 때, 한 주지스님이 설법전에 걸린 영가를 소개하면서 1인당 2만원인데, 1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20억이 넘는 거액이다. 그 주지스님은 그렇게 모인 돈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방편은 우리 삶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도법 스님: 방편을 버릴 수는 없다. 법다운 방편, 법에 맞는 방법과 과정이 중요하다. 천도재는 상업화다. 법답게 하고 있는가, 법의 중심에서 48재를, 천도재를 하고 있는가, 상업화되지 않았느냐는 물어볼 문제다.

천도재를 통해 모은 돈을 합리적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49재를 하더라도 법의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무비 스님: 신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이다. 신도 의식 수준이 문제다. 염불, 참선 등 다양한 수행방법이 있는데도 천도재에 동조하니까 공급자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나친 무속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도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양쪽 다 한심할 뿐이다. 우리 모두 같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지구촌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유불선의 海道金卵 영도자가 전세계를 지배 즉시현문 현빈 현관을 열어 수재와 천재가 되어 도통하는 속명통 육경신 대법회

진관전법 海道金卵의 비밀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사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누구도 상에 빠져 울과 양 유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중의 원부리를 팔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 경신도법으로 탐진치 곱질을 벗는 수행법이고 울과 양이 바뀌고 신과 바다와 물결과 물결이 바뀌는 지구촌 천지공사로 천마리 닭과 마을이 있으나 통황의 소리가 울려야 지구촌 닭이 울어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단군이래 9000여차례 천락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운이 최후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윤오월 경신일 초복 무국성군이 양력 9월 11일 12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경신일 소울을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게 뜻을 전하고 하늘의 뜻을 받는 속명통 육도법.

스 명통 수행은 수행하는 자들의 능력과 말문을 열어 삼독의 뿌리를 끊고 마음자리에 부처를 모시는 것이고, 염불도 통, 참선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는 인류도통군사 사망자 지도 주문으로 천부팔력을 알아야 일류 최고 스승 되는 것이다.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전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속명통 도통군사 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플루 전염병을 막는 것은 배짱을 먹는 것이 비방이다.

대한불교달마중조계종 부산법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법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후대문 010-8533-1601, 010-3239-3110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으로 해안을 열어 거부정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이명당 진인줄천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기동명당 통황산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중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의집 수행처 법당염불처, 맞이영양사, 수행사, 인연사 동참자, 달마중 입중 환영.

●입제: 양력 2009년 9월 11일(윤, 7월 23일 금요일)(해시)
●해제: 양력 2009년 9월 12일(윤, 7월 24일 토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락대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살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 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에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법당)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특달마경신도통회 신통 세계불교달마중 종본산 태일합장

현공풍수를 아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수지리! 내가 직접 배워 생활에 적용하여 보십시오. 현공풍수는 중국 당나라 양구빈(834~900년)선생이 창안하여 그 동안 천년이 넘도록 사제지간에만 극비로 전해 내려온 독특한 풍수이론으로 최근에 대만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고급 풍수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공풍수이론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공풍수는 1에서 9의 숫자조합만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1학기만 배워도 수 십년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보다 주택(건물), 분묘를 더욱 명쾌하게 길흉하복을 감정 할 수 있는 천하 제일의 풍수지리학입니다.

현공풍수를 배우면

- ※아무리 좋은 대명당일지라도 좌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 8운(2004년~2023년)중예 간, 인, 곤, 신, 술, 진 6개 좌향으로 신축한 주택(건물) 또는 이사한 주택, 묘(이장 포함)를 쓰면 폐가망신 하게 됩니다.
- ※특히 양택에서는 생극제화법을 이용하여 추경피용 할 수 있습니다.
- ※현공풍수의 복잡한 이론은 조건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대표적인 풍수학설(포태법과 동서팔택법)이 맞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 대상자

스님, 법사, 포교사,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인테리어, 전원주택, 펜션, 부동산컨설팅, 경매, (한)의사, 군지휘관, 장래업, 문중관계자, 민속학자, 문화콘텐츠, 감정사, 토지개발관계자, 역학인, 기존의 풍수사, 일반인

※ 기본 한자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및 문의전화 ◀

- 바보철학원(경기평택) 018-308-1636
- 광주시평생교육관(전남광양) 011-626-0270
- 한림대평생교육원(강원춘천) 016-772-6688
- 군산대평생교육원(전북군산) 010-7788-1688
- 진주동남학원(경남진주) 055-761-1828
- 부천대평생교육원(경기부천) 011-308-1830
- 원광대평생교육원(전북 익산) 011-659-1744
- 대전대평생교육원(대전광역시) 011-308-1830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http://cafe.daum.net/gursrhdvndtn